

#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 연구

이래호(강원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나는 분류사의 목록을 정리하고 언간의 수량사구 유형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며 아울러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유형과 분류사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국어 분류사와 수량사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사와 수량사구의 유형 및 그 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도 채완(1982, 1983)을 비롯하여 허웅(1983), 석주연(2011), 배영환(2015), 조미희(2015), 이형주(2019)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채완(1982)은 국어의 수량사구의 유형과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세국어 수량사구의 유형과 발달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언간을 대상으로 한 배영환(2015)를 제외하면 이들 연구들은 언해문 위주의 판본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당시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수량사구의 모습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배영환(2015)에서는 언간을 대상으로 분류사의 목록과 특징,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배영환(2015)에서 판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분류사들이 대거 소개된 것을 보면, 일상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고, 실제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착된 자료일수록 분류사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고(배영환 2015: 139), 판본 자료와는 다른 수량사구의 특징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언간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황문환 외, 2013)에 수록된 1,465건이다. 여기에 실리지 않는 <신창맹씨묘출토언간>도 포함하였다. 언간에 나타나는 분류사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 간행한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황문환 외 2016)을 참조하였다.

## 2. 언간의 분류사 목록과 분포

언간의 수량사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량사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채완(1982)에서 15, 16세기 국어 분류사 58개를 제시하였고, 허웅(1983)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분류사 20개를 제시하였다. 허웅(1983)에 비하여 채완(1982)에서는 더 많은 분류사가 제시되었지만<sup>1)</sup>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분류사의 일부가 제외되어 있기도 하고<sup>2)</sup> 일부는 일반

1) (1983)에 제시되어 있는 분류사들이 채완(1982)에 빠져 있는 것들도 있다.

2) “쑹나뭇 스톨 지 두 마를(二斗) 큰 실의 떠<구급간이방언해6:88b>” 등에서 나타나는 ‘말’(斗)과 같은 분류사가

명사가 전용되어 분류사로 쓰이는 예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배영환(2015)은 언간에 나타나는 분류사를 의생활, 식생활, 질병 및 의학, 경제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의미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언간에 나타나는 분류사들이 배영환(2015)에서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배영환(2015)를 보완하여 언간에 쓰인 분류사들을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언간의 분류사

가디/가지/ㄹ지, 가락, 가래/가리/가리, 간, 갓, 개/기, 것, 결, 고리, 곳/곳/고지, 곧/곳, 골, 곱, 꺾, 꺾, 구, 권, 궤, 그랏/그릇, 근, 글, ㄹ음/ㄹ음, 국, 날[日], 낮/낮츠/낮, 냥/양, 년(여자의 비칭), 년/연(年), 념, 념, 놉, 니/리/이(里), 널, 낚, 닻, 단, 들/달, 당삼, 대, 덩이, 덩, 돈/도, 돕디, 동, 동고리, 되, 동, 두, 두레, 두로미, 두롬/드름/드름, 드리, 디, 마리/마래/말리, 말/마, 말드리, 마지기/말디기, 명, 모, 못, 못금, 몽치, ㄹ이, ㄹ, 바리/밭이, 밭, 밤, 번/변, 별/별/블/블/블, 병, 보, 북, 북즈, 봉, 부, 분, 비, 빼/썩, 짝, 사리, 삭, 살/술, 상, 식/새, 석, 섬, 섬직기, 세, 쇼, 술, 순, 시, 식, 실과, 식, 썰, 썩, 썰, 썩리, 싹/삼, 싹, 싹, 쪽/쪽, 아롬, 오리, 울, 울, 위, 인(人), 일, 자/자ㅎ, 작, 재, 자, 장/장/자/당, 잔/잔, 저울, 적, 접/접, 제/저, 조각, 족, 줄, 줌, 죽, 직, 집, 즈, 즈르, 즉, 척, 첩/텨, 최, 치, 츠, 커리/켜레/켜리/거리, 토, 통, 편, 포기, 푼/썩, 필/풀/피/빌, 필지, 향/향아리, 흙, 환, 히(年)

(1)은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서, 수관형사 다음에 나타나는 분류사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 찾은 분류사는 총 150개이며, 이를 의미와 이표기까지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의존명사가 대부분이지만, 자립명사가 전용되어 분류사로 쓰이는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의 분류사를 어중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 분류사는 101개, 한자어 분류사는 49개로, 전체 분류사 가운데 고유어가 약 67.3%를 차지한다.

분류사는 그 종류에 따라 출현 빈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16세기 언간부터 20세기 초 언간(송병필가 언간)까지 고출현 빈도를 보이는 몇 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고빈도 분류사

순위	분류사	빈도	순위	분류사	빈도
1	말/마	140	10	가디/가지/ㄹ지	32
2	필/풀/피/빌	128	11	근	31
3	냥(兩)	114	12	섬	31
4	번/변(番)	78	13	마리/마래/말리	28
5	되	62	14	자/자ㅎ	27
6	즈	52	15	순	26
7	니/리/이(里)	49	16	분	24
8	일(日)	37	17	권	21
9	들/달	36	18	년/연(年)	20

있다.

(2)는 언간에서 20회 이상 나타나는 18개의 분류사 목록이다.<sup>3)</sup> 부피, 무게, 길이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분류사(말, 필, 되, 근, 섬, 즈, 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 거리, 시간 따위를 나타내는 분류사(일, 리, 달, 년) 등도 많이 나타난다. 사물을 그 성질이나 특징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는 ‘가지’, 횃수를 나타내는 ‘번’ 등도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난다. 부피, 무게, 길이 단위의 분류사는 주로 식생활 가운데 곡류, 의생활 가운데 피륙 등을 세는 분류사로서 언간의 내용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사들은 후대로 갈수록 그 종류가 늘어나는데, 그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세기별 출현 분류사 목록

세기	분류사 목록	목록 수
16세기	거리, 것, 견, 곧, 곱, 괴, 권, 그릇, 근, 글, 날, 낫, 냥, 년, 널, 님, 단, 덩, 돈, 되, 들, 리, 마리, 말, 말드리, 못, 못금, 바리, 번, 복, 사리, 새, 섬, 술, 울, 자/자ㅎ, 저울, 적, 접, 줄, 줌, 집, 즈, 빌/블/피, 필지, 홉, 히	47
17세기	가래/가리, 가지, 간, 갓, 고리, 곱/곶/고지, 곧/곶, 권, 그릇, 근, 국, 날[日], 낫, 냥/양, 년, 년/연(年), 녕, 님, 단, 달/들, 당삼, 대, 당, 덩, 돈/도, 돕디, 동, 되, 동, 두롬/드름/드름, 뒤, 리, 마리/마래, 말, 말드리, 말디기, 명, 모, 못, 밭, 바리/밭이, 번, 병, 봉, 분, 불, 빼, 새, 석, 섬, 술, 순, 실과, 솔, 썩리, 쌍, 아릅, 오리, 자/자ㅎ, 잔, 재, 장/장/쟈, 적, 줌, 즈, 즈르, 척, 치, 편, 푼/쑼, 필/피, 홉, 환, 히	73
18세기	가디/가지, 괴, 권, 근, 날, 낫/낫, 냥, 년, 당/장, 돈, 되, 두, 들, 마(말), 마리, 마지기, 말, 모, 모이, 바리, 밭, 번, 복, 복즈, 부, 분, 상, 섬, 섬직기, 세, 쇼, 술, 순, 일, 자, 줄, 즈, 푼, 필, 홉, 히	41
19세기	가락, 가리, 가지/ㄱ지, 간, 개, 곱/곶, 곱, 곱, 구, 권, 궈, 그릇/그릇, 근, ㄱ음/ㄱ음, 기, 낫/낫츠, 냥/양, 년, 년/연(年), 녕, 놉, 리/니/이(里), 님, 단, 달/들, 당, 덩이, 돈, 되, 두레, 드리, 뒤, 마리/말리, 마지기, 말, 모, 몽치, 바리, 밭, 밤, 번, 벌/벌/불, 병, 보, 봉, 부, 분, 비, 삭, 살, 섬, 세, 순, 시, 식, 식, 식, 썩, 썩, 쌍/삼, 쌍, 짝, 쪽, 울, 위, 인(人), 일, 자, 잔, 장/장/쟈, 접, 제/저, 조각, 줄, 죽, 직, 즈, 척, 첩/텨, 치, 츠, 거리/커리/켜레/켜리, 통, 편, 푼, 필/피/풀, 향/향아리, 홉, 환	90
20세기 초	가지, 골, 곱, 근, 년, 놉, 달, 돈, 되, 말, 명, 바리, 번/변, 별(별), 병, 분, 살, 석, 섬, 세, 순, 식, 세, 썩, 짝, 쌍, 양(냥), 오리, 이(리), 일, 작, 즉, 척, 토, 포기, 푼, 환	36

(3)에서 18세기와 20세기에 분류사의 목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언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분류사도 그만큼 적게 나타난 것이다. 18세기를 제외한다면 16, 17,

3) 1 나타나는 분류사들은 다음과 같다.

가락, 견, 곱, 곱, 궈, 글, 국, 녕, 널, 당삼, 덩이, 돕디, 동고리, 동, 두, 두레, 드리, 못금, 몽치, 모이, 밭, 보, 복즈, 사리, 상, 섬직기, 쇼, 시, 식, 실과, 솔, 썩, 썩, 세, 썩리, 아릅, 울, 울, 위, 재, 조각, 죽, 죽, 직, 집, 즉, 척, 토, 통, 포기, 필지

19세기에 분류사의 목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첫째, 근대 후기로 갈수록 분류사가 꾸준히 발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 산업, 생활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물건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이들을 세분화하여 분류할 분류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류사가 만들어지거나 분류사의 사용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언간에서 19세기에 나타나는 분류사로는 ‘가락, 가래, 구, 례, ㄹ음/ㄹ음, 념, 덩이, 두레, 드리, 뭉치, 밤, 보, 빅, 식, 식, 썰, 짝, 울, 제/저, 죽, 직, 책, 첩/텃, 통, 향’ 등이 있다. 둘째, 분류사의 발달보다는 편지의 내용에 여러 물명들이 등장하면서 그만큼 분류사가 많이 편지 안에 쓰이게 되었을 단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언간의 수량사구 유형과 양상

채완(1982: 158-159)에서는 수량사구는 수량사, 분류사, 명사로 구성되는데, 때로는 분류사 없이 명사와 수량사로만 구성되기도 하므로 수량사가 없는 구성까지 합하면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다.<sup>4)</sup>

- (4) 가. 명사-수량사[N-Q]: 사람 둘
  - 머리 열<석보상절6, 32a>
- 나. 명사-(수량사-분류사)[N-(Q-Cl)]: 사람 두 명
  - 큰 바늘 일빅 밤<변역노걸대下:67a-69b>
- 다. 수량사-명사[Q-N]: 두 사람
  - 두 머리<석보상절3:32b>
- 라. (수량사-분류사)-명사[(Q-Cl)-N]: 두 명의 사람
  - 네 가짓 受苦<석상 6, 4a>

채완(1982)에서와 같이 중세국어의 판본 자료에서의 수량사구는 대체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량사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 (5) 가. 조기도 인느니라 코 이트릭 혼 못식 먹더니 어제 형님 달라 혀셔늘 너 무시 잇거늘 노혀실가 너겨 혼 못 보내고<순천김씨묘-157>
- 나. 그 후는 금계로 다시 인편 업시 춘 너 달 만의 이지야 기별을 듯즈오니<김성일가-116>
- 다. 금년 더위는 소무전고흔 듯하니 녹십여 일 엇디 디내엿는디 일궤라 디내닉<순원봉서-06>
- (6) 가. 연그미도 므를 타 가니 짐 므집다 혀고 면화 근도 보낼 세 업서 잇다<순천김씨묘-062>
- 나. 설 미쳐 사르미나 브리고져 혀시더니 더리 나가 도니 몯 갖느니라 진봉 갈 제

4) (1982)에서는 (A)형: N-Q, (B)형: N-(Q-Cl), (C)형: Q-N, (D)형: (Q-Cl)-N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Q는 Quantifier(수량사), N은 Noun(명사), Cl은 Classifier(분류사)를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C)형이 가장 기원적인 수량사구이고, 어순이 변화된 것이 (A)형, (A)형에 Cl이 첨가된 것이 (C)형에 ‘Cl’이 첨가된 것이 (D)형, D형에서 어순이 바뀌거나 (A)형에 Cl이 첨가된 것이 (B)형이라 하였다.

야 감 더비나 어더 보내니라<순천김씨묘-085<선찰9-025>

다. 예셔 유렴흔 거시 열 필이오니 등목 열 필은 더 스러 하시니 게셔 고은 세목 필이나 서너 필 더 스고<김성일가-038, 1848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5)는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에서 명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5가)는 앞에 언급된 명사가 생략되어 ‘수량사+분류사’ 구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생략된 명사를 복원해 낼 수 있다. 같은 구성인 (5나)와 (5다)는 (5가)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넉 달’, ‘눅십여 일’은 ‘수량사+분류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량사 앞에 어떠한 명사를 채워 넣기가 쉽지 않다. 분류사 ‘달’, ‘일’은 수량화되는 “기간”이나 “날”을 뜻하는데, 이들은 그 자체로 관련되는 명사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사가 따로 나타나지 않아도 수량사와 분류사만으로도 수량사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5)의 두 유형은 분류사가 명사를 함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명사가 생략 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량사+분류사’ 구성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6)의 ‘조긔 낫’, ‘감 덩’, ‘세목 필’은 다른 언간에서 ‘면화 설흔 그늘’<순천김씨묘-100>, ‘감 넉 덩’<순천김씨묘-133>, ‘세목 혼 필’<김성일가-048>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에서 수량사가 나타나지 않은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량사구는 수량사를 드러내지 않아 의미의 특수화를 겪는다. 곧, 문면에 구체적인 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명사에 해당하는 것 몇 개 또는 적은 수의 개수”와 같이 “부정수량(不定數量) 특히 소량(이형주, 2019: 84)을 나타내게 된다. 언간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수량사 구성이 생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명사+분류사’ 구성으로 지칭한다.

(4)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에 (5)와 (6)에서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을 더하면 언간에서 나타나는 수량사구는 다음 여섯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7) 가. 명사+수량사: 게젯 열 건슈어 흐나 은구어 네 밤다식 설흔 왜감즈 아홉 굴 여 뿔 블근 감즈 닐곱 블근 감즈 닐곱 오란 큰 스당의 천신희 읍세 보너고<송준길가-20>

나. 명사+수량사+분류사: 양식 흔 말 들콩 너 되 조차 보내소<진주하씨묘-013>

다. 수량사+분류사: 피지나 쓰기 세 권 쓰고 네 권 나마시니 츠자 보내옵너<선세 언독-14>, 오늘 네 번을 보왔다 헝거늘<숙명-56>

다. 수량사+명사: 흔 즈식도 업시<순천김씨묘-036>, 흔 당오시나 지어다 형테 주 자 흐니<순천김씨묘-059><sup>5)</sup>

라. 수량사+분류사+명사: 흔 간 스당을 내 스당 올흔 넉희 지어<송시열-1>

마. 명사+분류사: 회갑날 도반이나 헝여 즙습개 돈 얏을 쏘어더 보내여야 홀거시니 <추사가-23>

5) +명사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명사는 가산성 명사가 온다. ‘물’과 같이 불가산성 명사가 올 때는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이나 ‘수량사+분류사+명사’ 구성을 취하는데, 언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가산성 명사 ‘물’이 ‘수량사+명사’ 구성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붓두막 후희 세 우물물을 기러 가다가 병의 너허 업나모 가지를 병부리의 박고<이동표가-03>

이 외에도 언간에서는 (7)의 유형들이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8) 가. 거번 사 보내오신 값 돈 반 닛줍고 아니 보내여습더니 보내오며<송준길가-73>  
나. 열 새 열흔 새면 혼 마리고 열석 새면 빨 말 엇 되라 하니<진주하씨묘-115>  
다. 다 정신 업슨디 들 나마 구병하니 하 설오니 편지도 즈시 몬하니 이 즈식드리  
하나하나 흘가 브라고 보내노라<순천김씨묘-171>  
라. 그 후 들이 너머스오니 노념이 더 심흐온디 년흐와 첩결 업스오며 기운 일양  
평안흐옵시니잇가<김성일가-011>
- (9) 가. 너히 하 궁히여 하니 흔 솥것 나치나 하자 하니 아므려도 몬 히여 보내로다<순  
천김씨묘-031,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8가)의 ‘값 돈’은 문맥상 분명하게 “값 한 돈”으로, (8나)의 ‘빨 말’은 “빨 한 말” 정도로 해석되는 예이다. (8다)도 문맥상 ‘들 나마’는 ‘한 달 남짓’ 정도로,<sup>6)</sup> (8라)도 ‘들이’는 ‘한 달이’ 정도로 해석된다. (8라)는 ‘큰 마리’, ‘저근 마리’는 각각 ‘큰 혼 마리’, ‘저근 혼 마리’ 정도로 복원될 수 있을 듯하다. 곧 (8가)와 (8나)는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에서 수량사가 생략된 것이고, (8다)와 (8라)는 수량사+분류사 구성에서 수량사가 생략된 구성이다. (8마)는 표면상으로는 ‘분류사+명사’의 특별한 구성을 띠고 있으나, 문맥상 ‘한 필 모수’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 ‘수량사+분류사+명사’ 구성에서 수량사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량사구의 생략된 이러한 수량사는 문맥에 의해서, 또는 편지 작성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가)의 ‘흔 솥것 낫’은 ‘수량사+명사+분류사’의 구성으로 (7)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구성이다. ‘솥것 혼 낫’(‘명사+수량사+분류사’)의 오기일 수도 있고, ‘수량사+명사’의 구성에 분류사가 결합하여 ‘속옷 한두세 장’ 정도의 적은 수의 부정 수량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다. 이 구성은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량사의 어종과 관련하여 분류사와 수량사는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어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유어가 많고 적은 수의 수량사가 많이 나타나므로 한자어 분류사가 결합하더라도 대부분 고유어 수량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대국어처럼 언간에 나타나는 분류사는 ‘일’(日), ‘년’(年), ‘세’(勢)처럼 항상 한자어 수량사와 결합하는 분류사일 경우와 큰 수에서는 분류사가 고유어이든 한자어이든 한자어 수량사가 결합한다.

- (10) 가. 약과 이씩 낫 보내노라 슈오귀 지비 마은 낫 겨너 지비 마은 낫 더이리 지비  
마은 낫 여드느란 네 지비 즈식 주고 학개 올 저기어든 머겨라<순천김씨묘  
-135,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나. 드르니 장동 니 선달의 창방이 구월 초흐른날로 흔다 하니 궁가의 어이 출히는  
고 블상하니 기로소 돈 오 냇을 즈시 갓다가 드려 보태여 쓰게 히여라<선찰  
-8-2>  
나!. 예셔는 처음 기별히여 겨오시기 상쥬과 청쥬를 브려습더니 석 냇 자리에 {닷}

6) 같은 구조에서 ‘들 나마’ 앞에 수량사 ‘흔’이 나타난 예가 있다.  
그런 세 필 벵 설흔다연 자 히□ 보내고 아니 보내니 내 다시 하니 쥬 들히 혼 들 {나마} 머뜨러 세 필 짜 가느  
니라<순천김씨묘-134,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냥을 주고 사 와습기 가슬 빗읍고<송준길가-67>

다. 너희 누에들 다 치더라 터니 엇더니 내 하는 인 즘민 거록더니 한 즘민 죄 죽고 계오 스프나몬 마른 호덕<순천김씨묘-057,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라. 경향이 머은들 엇지 그리 일 봉셔을 아니시니 전일 밋든 비 안닌가 흐느이다 무삼 일노 오신 거슨 나도 반이나 +<순명효황후-09, 1897년, 순명효황후→김상덕>

(10가)는 ‘낫’이 고유어 수량사, 한자어 수량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100 이상의 큰 수는 고유어가 없으므로 한자어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10가)에서 고유어 ‘마은’, ‘여든’이 나타나는 것처럼 100 이하의 경우는 주로 고유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높다. (10나), (10다)는 각각 한자어 분류사에 한자어 수량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한자어 분류사이더라도 적은 수에서는 (10나)와 같이 고유어 수량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10나), (10다)와 같이 한자어 수사가 쓰이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난다.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에서 그 수가 3, 4이면 분류사에 따라 수량사의 형태를 달리 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 번, 서 돈, 석 장’ 등이 그것인데, 표준어 규정에서는 ‘세’와 어울려 쓸 수 없고, ‘서’나 ‘석’과 어울려 써야 하는 단위 명사로 각각 ‘돈, 말, 밭, 푼’, ‘냥, 되, 섬, 자’만을 명시하고 있다.<sup>7)</sup> 그리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 명사의 경우, ‘세’, ‘석’이 단위 명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쓰인다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되, ‘세’를 원칙 표기로 보고 있다. 인간에서는 분류사에 따라 수량사의 형태의 고정화 정도가 다르다.

(11) 가. 서: 서 말<순천김씨묘-065>(19회), 서 되<송준길가-35>(2회), 서 홉<송준길가-35>(1회), 서 근<송준길가-90>(2회), 서 마지기<김성일가-001-3>(5회), 서 돈<김성일가-131>(1회), 서 살<송병필가-45>(1회)<sup>8)</sup>

나. 너: 너 마리<순천김씨묘-113>(1회), 너 못<순천김씨묘-157>(1회), 너 되<진주하씨묘-010>(5회), 너 말<진주하씨묘-167>(13회), 너 돈<선세언독-37>(2회)

(12) 가. 석: 석 썰<순천김씨묘-079>(3회), 석 들<순천김씨묘-079>(6회), 석 냥<송준길가-67>(6회), 석 당<이동표가-16>(3회), 석 즘<김성일가-046>(2회)

나. 녁: 녁 냥<진주하씨묘-096>(4회), 녁 양<김성일가-060>(2회), 녁 달<김성일가-116>(1회), 무명 녁 자<선찰-9-036>(1회)

(13) 가. 세: 세 필<순천김씨묘-010>, 세 번<순천김씨묘-038>, 세 낫<순천김씨묘-166>, 세 줄<순천김씨묘-041>, 세 저울<순천김씨묘-057>, 세 필<순천김씨묘-090>, 세 닐<순천김씨묘-190>, 세 가지<진주하씨묘-032>, 세 마리<진주하씨묘-035>, 세 대<진주하씨묘-115>, 세 번<진주하씨묘-117>, 세 치<진주하씨묘-166>, 세 권<선세언독-14>, 세 순<이동표가-15>, 세 곳<창계-12>, 세 즘<창계-12>, 세 권<창계-15>, 세 슬<숙명-46>, 세 북<자손보전-05>, 세 ㅁ음<김성일가-045>, 세 분<순원봉서-08>, 세 락

7)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8) 괄호의 숫자는 전체 인간에서 출현 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송병필가-02>, 세 째<송병필가-73>

나. 네 낮<순천김씨묘-143>, 네 권<선세연독-14>, 네 번<숙휘-19>, 네 순<이동표가-23>, 네 가지<김성일가-021>,

분류사 ‘말’과 ‘돈’은 전체 언간에서 수량사의 형태가 항상 ‘서’, ‘너’로만 나타나 현대 표준어 규정과 일치하는데, ‘되’는 ‘식’, ‘닉’이 아닌 ‘서’, ‘너’로만 쓰이고 있고, ‘냥’, ‘섬’, ‘즈’, ‘냥’는 항상 ‘식, 닉’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 규정과 불일치하는 모습이다. 그 밖의 분류사들은 대부분 ‘세’, ‘네’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채완(1982)은 원래 국어의 수량사구는 분류사가 없는 수량사구였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분류사가 있는 수량사구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분류사의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하였다. 중세국어까지만 하더라도 ‘수량사+ 명사’의 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수량사구였고, ‘명사+ 수량사’의 유형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명사+ 수량사’ 유형에 분류사가 첨가된 ‘명사+ 수량사+ 분류사’ 유형이 후대 문헌일수록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며, ‘수량사+ 명사’ 유형에 분류사가 첨가된 ‘수량사+ 분류사+ 명사’의 유형은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분류사의 다양화와 함께 그 사용 빈도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간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은 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유형별, 시기별 분포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14) 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유형별, 시기별 분포 현황

분류	명사 + 수량사	수량사 + 명사	수량사 + 분류사	명사+ 수량사 + 분류사	수량사+ 분류사+ 명사	명사+ 분류사	계
15세기 (신창맹씨언간)	1 (5.0%)		2 (10.0%)	17 (85.0%)			20
16세기 중후기	23 (7.5%)	33 (10.8%)	144 (47.2%)	85 (27.9%)	4 (1.3%)	16 (5.2%)	305
17세기	전기 38 (11.8%)	18 (5.6%)	154 (48.0%)	102 (31.8%)	8 (2.5%)	1 (0.3%)	321
	후기 23 (12.2%)	20 (10.6%)	93 (49.2%)	46 (24.3%)	7 (3.7%)		189
18세기	전기 23 (20.7%)	11 (9.9%)	43 (38.7%)	29 (26.1%)	2 (1.8%)	3 (2.7%)	111
	후기 11 (10.4%)	9 (8.5%)	41 (38.7%)	38 (35.8%)	1 (0.9%)	6 (%)	106
19세기	전기 53 (9.8%)	53 (9.8%)	268 (49.4%)	125 (23.1%)	12 (2.2%)	31 (5.7%)	542
	후기 22 (9.8%)	21 (9.4%)	91 (40.6%)	87 (38.8%)	3 (1.3%)		224
계	194 (10.7%)	165 (9.1%)	836 (46.0%)	529 (29.1%)	37 (2.0%)	57 (3.1%)	1818

언간에서 사물 관련 수량사구일 경우, 각 세기별로 ‘(명사)+ 수량사+ 분류사’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명사+ 수량사’, ‘수량사+ 명사’의 구성이 많이 나타나며 두 구성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가장 적게 나타나는 구성은 ‘수량사+ 분류사+ 명사’ 구성과 ‘명사+ 분

류사' 구성이다. (14)는 판본을 중심으로 한 채완(1982)와의 수량사구의 변화와는 다르게 일상언어를 반영하는 언간에서는 이미 16세기(중후반)부터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이 가장 보편적인 수량사구였으며<sup>9)</sup> 이러한 양상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곧, 언간의 언어에서는 이미 16세기(중후반)에 수량사구의 양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사람 관련 수량사구 유형의 변화와 분류사

(7)에서 언간에 나타나는 수량사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유형이 사람 관련 수량사구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언간에 나타나는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시기별 유형

세기	수량사구	용례
16세기	명사+수량사	아들 둘<순천김씨묘-145>
	수량사+명사	흔 종<순천김씨묘-176>
17세기	명사+수량사	얼운 종 둘<진주하씨묘-166>
	수량사+명사	두 아으님<진주하씨묘-047>
	수량사+분류사	빅여 명<창계-09>
	명사+수량사+분류사	종 두 놈<이동표가-27-1>
18세기	명사+수량사	사람 대엿<송준길가-84>
	수량사+명사	세 아희<월성이씨-3>
	수량사+분류사	두 분<추사가-18>
	수량사+분류사+명사	두 낫 즈식<선세언독-26>
19세기	명사+수량사	종놈들 세홀<김성일가-077>
	수량사+명사	두 오라바님<순원어필-1-02>
	명사+수량사+분류사	사돈 {두} 분<김성일가-089>
	수량사+분류사	흔 놈<추사-28>
	수량사+분류사+명사	{흔} 낫 즈식도<김성일가-039>

16세기 언간에서 나타나는 사람 관련 수량사구는 '명사+수량사', '수량사+명사' 유형뿐이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명사+수량사+분류사' 유형과 이 유형에서 명사가 생략된 '수량사+분류사' 유형이 추가되고, 18세기에는 17세기에 나타났던 '명사+수량사+분류사' 유형은 나타나지 않고 '수량사+분류사+명사' 유형이 더 나타난다. 19세기에는 5가지 유형 모두가 나타난다. 전 시기에 걸쳐 '명사+분류사' 유형은 사람 관련 수량사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언간에서 사람 관련 수량사구는 '명사+수량사', '수량사+명사' 유형에서 점차 뒤에 오는 수량사가 수량사+분류사로 대체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으로 발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시기별 분포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15 후반 자료인 <신창맹씨언간>에서도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이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신창맹씨언간>은 2건으로 규모가 작아 수량사구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언간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16세기 중후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16) 사람 관련 수량사구의 시기별 분포

시기	명사+수량사	수량사+명사	수량사+분류사	명사+수량사+분류사	수량사+분류사+명사	계
16세기 중·후기	7(43.8%)	9(56.3%)				16
17세기	전기	9(50.0%)	6(33.3%)	3(16.7%)		18
	후기	5(50%)	1(10%)	2(20%)	2(20%)	10
18세기	전기	6(50.0%)	4(33.3%)	1(8.3%)		12
	후기	2(22.2%)	4(44.4%)	2(22.2%)		9
19세기	전기	6(18.8%)	14(43.8%)	5(15.6%)	4(12.5%)	32
	후기	3(11.5%)	9(34.6%)	7(26.9%)	7(26.9%)	26
계	38	47	20	12	5	122

사람 관련 수량사구에서 16세기 중후기에 대체를 이루던 ‘명사+수량사’과 ‘수량사+명사’ 구성 가운데, ‘명사+수량사’ 구성은 18세기 전기까지 그 경향을 유지하다가 18세기 후기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수량사+명사’ 구성은 19세기까지 약간의 변화만을 보일 뿐이다. 사람 관련 수량사구에서 ‘명사+수량사’ 구성이 18세기에 줄어들면서 대신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과 명사가 생략된 ‘수량사+분류사’ 구성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첫째, 사람 관련 분류사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7세기 분류사 ‘명(名)’의 출현하여 발달하고 인간에서 평칭의 ‘명’과 존칭의 ‘분’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 ‘명사+수량사’ 구성의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명’은 17세기 초기 <신전자취염소방언해>(1635)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 점차적인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sup>10)</sup> 인간에서 ‘명’은 17세기 중반, ‘분’은 17세기 전기부터 나타나며 그 이후에 쓰임이 확대되어 나간다.

(17) 가. 답군을 빅여 명으로 가기의 보는 사름은 웅장이 녀기고 비록 우리 므음의도 □□히 적막디 아니시니 그는 다횡호고<창계-09>(1649~1696년)

나. 여기난 릭일 병정이 수천 명식 드리오옵고 날니가 미구불원 난다고 야단들을 흐나이다< -81>, 1920년, 김옥희(손녀) 진주이씨(할머니)>

(18) 가. 손님이 열세 분이 가시니 아라셔 출호소<진주하씨묘-112>

나. 설흔 분 진지를 출화 잡스올 량으로 출화 오라 호소<진주하씨묘-110>

언해문에서 주로 나타나던 ‘명’이 일상 언어에서도 쓰이기 시작하고 ‘분’이 쓰임이 확대되면서 ‘명사+수량사’ 구성에 분류사가 추가되어 ‘(명사+)수량사+분류사’의 구성이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인간에서 ‘사름’이 수량사구에 사용되고 더 나아가 분류사화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서 ‘사름’은 일반명사이면서 분류사로 쉽게 전용이 되며,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없이 사용되며 주로 ‘흔 사름’과 같이 ‘수량사+사름’의 구성으로 사용되었다.<sup>11)</sup>

10) “ 은 匠人 세 명과 役軍 닐곱 名으로 足흘씨라<신전자취염소방,18b-19a>

언간에서는 특이하게도 ‘사름’이 수량사구에 사용되는 예들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18세기 전기부터 수량사구에 사용되고 19세기에는 분류사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19) 가. 인마 네흔 잇스오니 게셔 물은 어렵스올 거시오니 사름 대엇만 보내오시면 도스올가 호오며<송준길가-84>

나. 녕감 상덕의 부즈 상면호고 무죄흔 님중을 닉여 노하 주오시고 궁 사름 흐나만 안고아 주오시면 다리고 내려가와 식니 신티혁이가 맞치게 흔다 호읍고<현상궁-1>

(20) 가. 별장 주인도 인정의 거리썸 흐나히나 호여 주어서는 게 싯출 다라 누고는 시기고 누고는 못 흔다 공평흔 일도 아니 되고 말이 설 길이 업스니 흔 사름을 위호여 새로 큰일을 바로 호고져 흔 디 흠이 되게 홀가 보오니잇가<순원어필-2-04>

나. 제 흔 놈이 또 중난호기 우리 두 사름만 가지고 호을 즌식이올가 보옵<추사-28>

언간에 분류사로서의 ‘사름’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sup>12)</sup> 판본 자료에서 이미 17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수량사구에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간에서 ‘사름’의 분류사화가 ‘(명사+수량사+분류사’ 구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 관련 수량사구에서 쓰이는 사람 관련 분류사는 “명, 인, 분, 낫, 놈, 년, 구”가 있다. 언간에 나타나는 ‘명, 인, 분’은 동시대 판본 자료의 쓰임이나 현대국어의 쓰임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언간에 나타나는 “낫, 놈, 년, 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남성우(1985: 115-116)에서 15세기 국어에서 ‘놈’은 다의적으로 사용되었고 하였다. ‘놈’은 [사람]을 뜻할 뿐 아니라 ‘남자의 평칭’과 ‘남자의 비칭’으로 사용되었으며<sup>13)</sup> 16세기에서 ‘놈’은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사름’과 동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사람 중 ‘남자’만을 뜻하기도 하였으며<sup>14)</sup> 17세기에는 ‘놈’은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사람의 비칭’과 ‘남자의 비칭(남성우 1985: 116)’이었다.<sup>15)</sup>

11) “ 善男子 善女人이 나 滅度 後에 能히 흔 사름 爲호야 法華 을 닐오되<1459월인석보15:45b>”와 같이 ‘수량사+사름’의 구성은 15세기부터 나타나나 ‘사름+수량사’의 구성은 16세기에서부터 나타난다. ‘사름+수량사’의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휘하의 사름 흐나토 힘 받즈오리 업스나<삼강행실도(동경대본)忠:33b>

나. 글 호고 횡실 잇는 사름 돌호로 버그니를 사마<여씨향약언해(화산본),2a>

12) 언간에서 ‘사름’이 분류사로 잘 쓰이지 않는데, 편지의 특성상 언급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종인지 특별히 구분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예에서 (16가)의 ‘흔 사름’은 언급이 되어 있는 특정한 사람이고, ‘우리 두 사름’은 김정희의 부부를 뜻한다. (16)의 예문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곧 ‘사름+수사’의 구성일 때는 비한정적인 불특정한 사람, ‘수관형사+사름’의 구성일 때는 한정적인 특정한 사람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13) ‘사람’과 동의어로 사용된 예는 ‘제 프들 시러 퍼디 물홍 노미 하나라’와 ‘저는 노미라<훈민정음언해 2b>가 있고, ‘남자의 평칭’으로 사용된 예는 “爲頭 도즈기 무로되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슨다 對答호되 흔 노미 큰 象 타고 오시며 瓔珞이며 象이 연자이 純한 七寶이라 큰 光名 퍼 天地를 비취우”<월인석보 10, 28b>가 있다. 또한 ‘남자의 비칭’으로 사용된 예는 ‘그뻘 모던 노미(時彼凶惡人)<석보상절24, 15b>가 있다(남성우 2001: 115)

14) 제 미 술 사르미 길헤 맞보아 어루려 커늘(路禹里人欲汚之)<속삼강행실도 25a>

그 노미 다조차 무너 오나날(里人逼之至門)<속삼강행실도 25a>

15) 남성우(2001: 116)에서는 사람의 평칭으로 쓰인 예로 ‘온 놈이 온 말을 호여도<송강 142>를 들었고, 남자의 비칭의 예로 ‘모든 놈들히 상궁을 써서 드러미러 보고<계축일기, 175>를 들었다.

- (21) 가. 넋일 요 두 놈은 실례숙비<sup>16</sup>하라 드러온다 하니 경연 출히노라 언머 분주<sup>16</sup>하노고  
 하노라<숙휘-27>
- 나. 제 흐 놈이 또 중난<sup>16</sup>하기 우리 두 샤름만 가지고 흐을 즈식이올가 보옵<추사-28>
- 다. 살옥 쥬인 흐 놈을 일코 즉금 츠즐려 닷나나 못 좃는다 흐여도 녹계 쥬인이 아니니 내게는 관계치 아니<sup>16</sup>하나 슈란슈란<sup>16</sup>하다<김성일가-123>
- 라. 샤당을 엇셋날 가 드러올라 흐더니 드러오거든 풍난이나 년악이나 둥에 흐 놈을 몰 모라 가 드러오라 흐고 옥쉬란 혼자 몰 주워 내여보내디 마소<진주하씨묘-067>
- 마. 쥬 두 놈을 날마다 남글 지여 방을 ㅁ장ㅁ장 덩게 흐고 아므 일도 넘너 마르시고 평안히 몸만 조심<sup>16</sup>하여 도리<sup>16</sup>하쇼셔<이동표가-27-1>

(21)은 ‘놈’이 수량사와 함께 쓰이고 있는 수량사구이다. (21가)~(21라)는 ‘수량사+놈’의 구성을, (21마)는 ‘명사+수량사+놈’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수량사구 내에서도 ‘놈’의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가)의 ‘실례숙비’는 “신래숙배(新來肅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임금에게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는 일)”에 해당되지만, 여기에서는 “마마를 치르는 일을 ‘과거(科擧)’라 미칭(美稱)하는 풍습에서 유래한 표현으로서, 왕실의 외손이 마마를 무사히 치러 내고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두 놈’이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마를 치르고 궁중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체가 낮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놈’은 일반적인 남자의 의미의 평칭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21나)의 ‘저’는 추사의 양자 상무를 가리키며, ‘놈’은 병을 앓고 있는 양자를 낮추어 부르는 것으로, (21다)의 ‘놈’은 살옥의 죄인 가운데 한 명을 이르는 것이므로 (21나), (21다)의 ‘놈’은 일반 남자의 비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1라)는 ‘놈’은 ‘풍난이나 년악이’ 중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풍난이’와 ‘년악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름으로 보아서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말을 몰아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노비(종)인 듯한데, 노비를 지칭하는 남성의 비칭으로 쓰이는 용법이 노비(종)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쓰이게 된 것으로 발달하게 되고,<sup>16)</sup> 이것이 (21마)와 같이 종을 세는 단위명사로 발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년’은 중세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의존명사이다. 언간에서는 16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여자의 비칭’으로 사용되었다.

- (22) 가. 그기 흐면 버릴 법도 잇거니와 그리타 풍뉴 흐고 술 혀는 {녀니니} 드러고셔 술과 풍뉴와 흐고 듀일 화리므로 이시니 나리사 흐마 박절히 되니 죽다 헤라 다만 즈식 드러 쟈기면 그리히여 불 거시라<순천김씨묘-024>
- 나. 쥬을 즉시도 주고져 호티 녀는 쥬은 맛쌍<sup>16</sup>하니 업서 뉴더기 곁에를 흐나홀 주고져 호티 이리 순티 아닌 {녀니니} <sup>16)</sup>결단 묻 흐니<순천김씨묘-163>

16) 의미는 20세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변의도 무단니 탄탄이와 근강이 흐 놈으로 흐여 식과 짝우고 오륙 일이나 말도 안코 안의 드러오지도 안코 썬나더니<송병필가-43, 1906년, 은진송씨(둘째 딸)→진주이씨(어머니)>  
 “탄탄이와 근강이 중 한 놈”의 의미인데, 근강이는 남자 이름인 듯하지만, ‘탄탄이’는 남성 이름 같지는 않다. 만약 여성이라면 ‘놈’은 20세기 초에도 남녀 구분 없이 비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22가)는 남편의 첩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면서 ‘년’으로 지칭하고 있고, (22나)는 종인 ‘뉴덕이’를 지칭하고 있다. 남편의 첩이나 종이 발신자인 신청강씨에게는 평칭의 대상도 되지 못하므로 ‘년’은 처음 나타날 때부터 ‘여성의 비칭’의 비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23) 가. 그러키 종이나 {흔} 년 두더면 그러도 미음 곱흔 거시라도 즈시게 혼올 거슬  
고이고이흔 음식의 비위가 잔득 상하여 더 못 즈시논 듯 급급 두립스온 용녀  
춘빙을 디딤온 듯<김성일가-039>

나. 노기 {두} 년이 드러와 반찬을 저의 손으로 하여 드리니 즈스오고 비위를 정하  
신 듯하오니 그년들 고맙습<김성일가-043>

(23가)에서는 ‘종’을 (23나)에서는 ‘노기’를 셀 때 ‘년’이 사용되었다. ‘놈’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여성의 비칭의 용법이 종이나 노기의 수를 셀 때 의존명사로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법은 언간에서 19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앞에서 ‘놈’이 남성이나 여성 종 모두에게 사용되다가 19세기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다.

(24) 아히종을 두 구나 세 구나 구하야 늦코스 내가 돈은 암미가 든다 하여도 당홀 거시  
니 아무려나 구하야 보아라<김성일가-069>

(24)에서는 아이종을 세는 단위로 ‘구’를 사용하였다.<sup>17)</sup> ‘구’는 사람이나 가축의 수효를 셀 때 쓰이었다. 대개 사람은 평민 이하에만 사용하였고 가축이나 짐승에 대해서는 네 발이 달린 짐승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다(박성훈, 1987: 22).<sup>18)</sup> 사람을 세는 단위와 가축의 수효를 세는 단위가 동일한 것은 ‘구’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종은 인간의 분류에 속하기보다는 ‘소나 말 따위의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경제의 수단이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배영환 2015: 157).

언간에서 자식을 셀 때는 다음과 같은 수량사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25) 가. 이리 병든 거시 즈식 {흐나히} 아니 삼기도더라<순천김씨묘-032>

나. 귀보기는 와서도 여귀 보리 적고 짐 홀 거슨 업거니와 아무려나 여나쁜 말 거  
시나 어더 보내고 {두} 즈시기 큰이틀 디내게 되고<순천김씨묘-06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을 수를 셀 때 (25가)와 같은 ‘명사+ 수사’, (25나)와 같은 ‘수관형사+ 명사’의 수량사구가 주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언간에서 자식의 수나 제3자를 제시할 때 ‘낫’이 쓰인 경우가 있다.

17) 자료에서도 ‘구’가 드물게 등장하고, 필사본 자료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가. 안취 즈스로 올마 보공석을 파흔 공으로 노비 빅구를 주니 대량이 닐너 곱오덕<1758종덕신편언해中:7b>  
나. 공양왕이 효사관(孝思觀)에 고하고 9공신(功臣)에게 녹권(錄券)을 내렸는데, ……노비(奴婢) 20구(口)를 내  
렸다(恭讓告孝思觀, 賜九功臣錄券。 …… 奴婢二十口).<태조실록 1권, 충서 107번째 기사>  
다. 니순몽(李順)은 판둥츄부시오 윤덕(潤德)은 노비 십 구를 주고<조야기문4,16a>  
18) 인간이나 판본 자료에서 ‘구’는 노비(종)을 세는 단위로만 사용되었다. ‘구’가 평민과 호응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평민 이하’는 평민이 포함되지 않는 ‘평민 미만’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 (26) 가. 김집 남득 심녀를 자넨 소헝기로 더 쓰노라 헝고 밤이 즘을 못 자고 휘휘증도 나으래더니 아히 죠고마헝다 헝니 {두} 낮 즘식의 애를 저리 쓰일 일이 무스 일이며<선세언독-2>
- 나. 근녁은 여지여지업스오시고 그러고 빗치옵시나 {흔} 낮 즘식도 싸라가 피치지 못헝오니 무지공청의 밤낮으로 혼자 안자 지넨 일이 역역 못 견디 헝오시기 었디 아니 그러헝옵시리<김성일가-039>
- 다. 이만 덕으며 브즈런이 헝물 순순 왕내거라 헝고 칙 전수 못는 일도 기별헝고 막음을 조용히 헝여야 모쳐 간 고딕 흔 {낮} 삼촌을 걱정시기디 아닐 일도 심 각헝여라<송준길가-23><sup>19)</sup>

(26)에서 쓰인 언간에서 ‘낮’은 ‘개(個)’의 의미로 주로 약과, 생포, 조기, 머육, 달걀, 전복 등을 셀 때 사용되는 단위명사이다. 그런데 (26)에서는 자식, 삼촌과 같은 사람을 셀 때 사용되고 있다. 물건을 세는 분류사를 사람을 세는 데 사용하면 그 분류사의 의미적 특징이 사람에게 전이되어 존칭이 많이 낮아지거나 비칭으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26나)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26가), (26다)에서는 비칭으로 사용하거나 부정적으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 결론

-생략-

### 참고문헌

- 남성우(1985). 국어의미론, 영언문화사.
- 남성우(2002), 국어 어휘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20, 81-126.
- 박부자(2015),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의 음식 관련 물명 연구」,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pp.113~141.
- 박성훈(1987), 단위어의 쓰임에 대하여(II)-낱개(1), 동양학 간보 6, pp.21~26.
- 배영환(2015), 언간에 나타난 분류사의 분포와 의미 연구, 언어학연구 36, 137-159.
- 석주연(2011), 조선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 우리말글 51, 29-49.
-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 이형주(2019), ‘명사+ 분류사’ 구문의 文法과 歷史的 變化, 어문연구 제47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102.
- 조미희(2015), 『번역노걸대』의 수량사구 구성 연구, 우리말연구 42, 우리말학회, 129-166.

19) (2009: 370)에서는 ‘흔낮’으로 판독하고, 현대어역에서는 “조금이라도”로 해석하였다. 국어사 자료에서 ‘흔낮’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찾을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흔낮’은 후행하는 명사가 대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흔낮’을 이러한 의미로 판단하면 ‘삼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본고에서는 ‘흔 낮’으로 판독하고자 한다.

- 조미희(2015), 『번역노걸대』의 수량사구 구성 연구, *우리말연구* 42, 우리말연구학회, 129~166.
- 조정아(2018), 「은진 송씨 송준길가 언간의 물명 연구」, <영주어문> 38, 영주어문학회, pp.31~70.
- 채완(1982).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어순변화의 일례로서-,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55-170.
- 채완(1983). 국어 數詞 및 數量詞句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34
- 채완(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167-180.
- 최형용 외(2017), *한국어 분류사 연구*, 역락.
- 허웅(1983),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신성철·이래호·조정아·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역락.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역락.